3대가 하나되는 중구

202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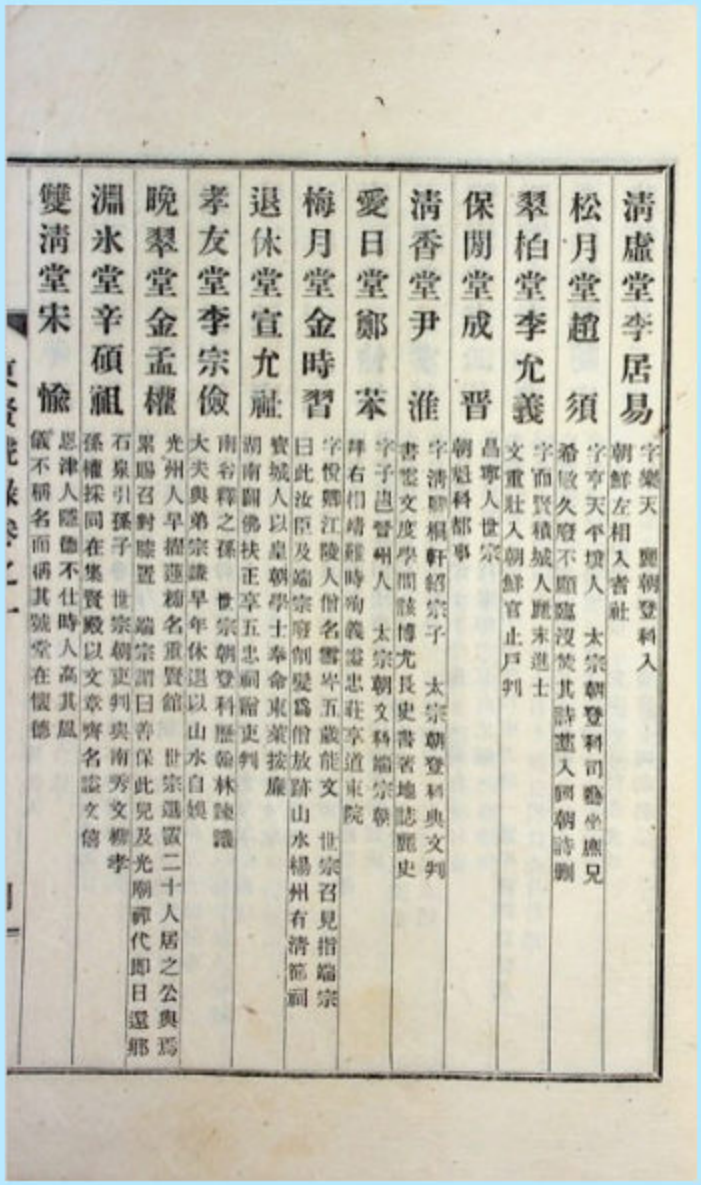
족보인사이트제17호

우리집이당!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동현호록〉, 1927년, 29.4 × 14.4cm,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한국족보박물관 소장 〈동현호록〉은

역대 인물을 호에 따라 분류한 책입니다.

동현호록에 수록된 전체 인명

총 4,478명



8위 암巖 154

7위 정亭 159

6위 계溪 206

5위 곡谷 224

4위 헌軒 247

3위 암菴 292

2위 당堂 427

1위 재齋 579

기타 은隱 촌村 산山 봉峰 등등 2,190

齋(재계할 재/집 재) 집,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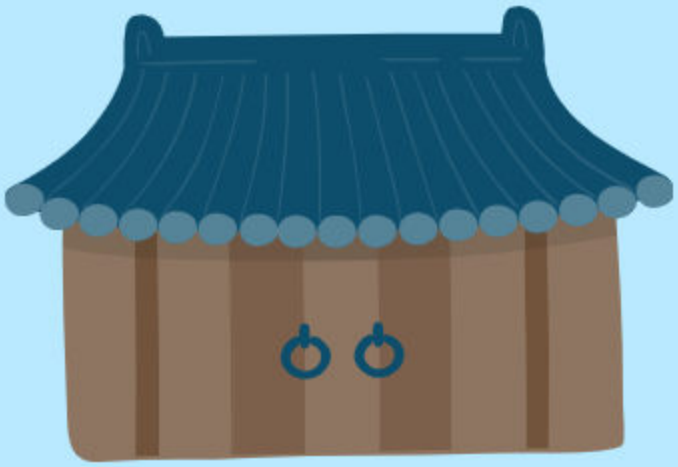
堂(집 당) 집, 사랑채

菴(암자 암) 암자, 초막(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이어 조그마하게 지은 막집 혹은 절 근처에 있는 승려의 집)

軒(집 헌) 집, 처마

亭(정자 정) 정자, 여인숙

동현호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의 끝 자는 1위 재(齋), 2위 당(堂), 3위 암(菴), 4위 헌(軒), 7위 정(亭)으로 집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



=

당호

옛 선조들은 집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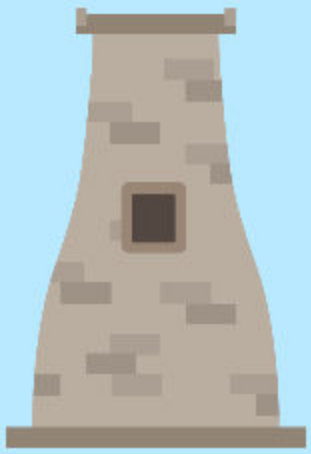
이를 '당호(堂號)'라고 하며 사람의 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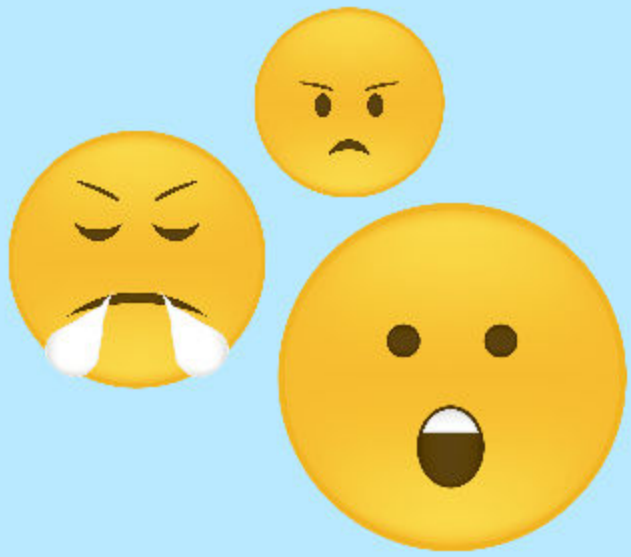
장소



사는 곳



자연물



성격

당호는 좋아하는 문장이나, 자연물, 장소, 사는 곳,

사람의 성격 등을 이용하여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호를 사용했습니다.

호는 가족, 스승, 친구 등이 쉽게 부르며 스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호 여유(**與猶**)는 '(**與**)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고,
(**猶**)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호로 지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유당 전서〉

여유당 (남양주 시청 출처)





정약용 (1762~1836)

당호를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호는 다산이나, 말년은 여유당이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압구정역
(3호선)

서울 강남시 '압구정동'의 유래를 아시나요?

한명회 호 압구(狎鷗)는 '갈매기와 친하게 놂'을 의미합니다.



압구정터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겸재 정선 作 〈압구정〉(출처 공유마당)

계유정난의 주역 한명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자의 이름 '압구정'을 자신의 호를 삼았습니다.



대전 지역의 선조들 또한 당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유회당 권이진 선생의 '유회(有懷)'는 중국 명나라 때 학자인
전목재의 '명발불매 유회이인'이라는 시에서 인용해 호로 지었습니다.



유회당 전경 (문화재청 출처)

대표적으로 대전 중구 무수동에 위치한
유회당 권이진 선생의 집과 호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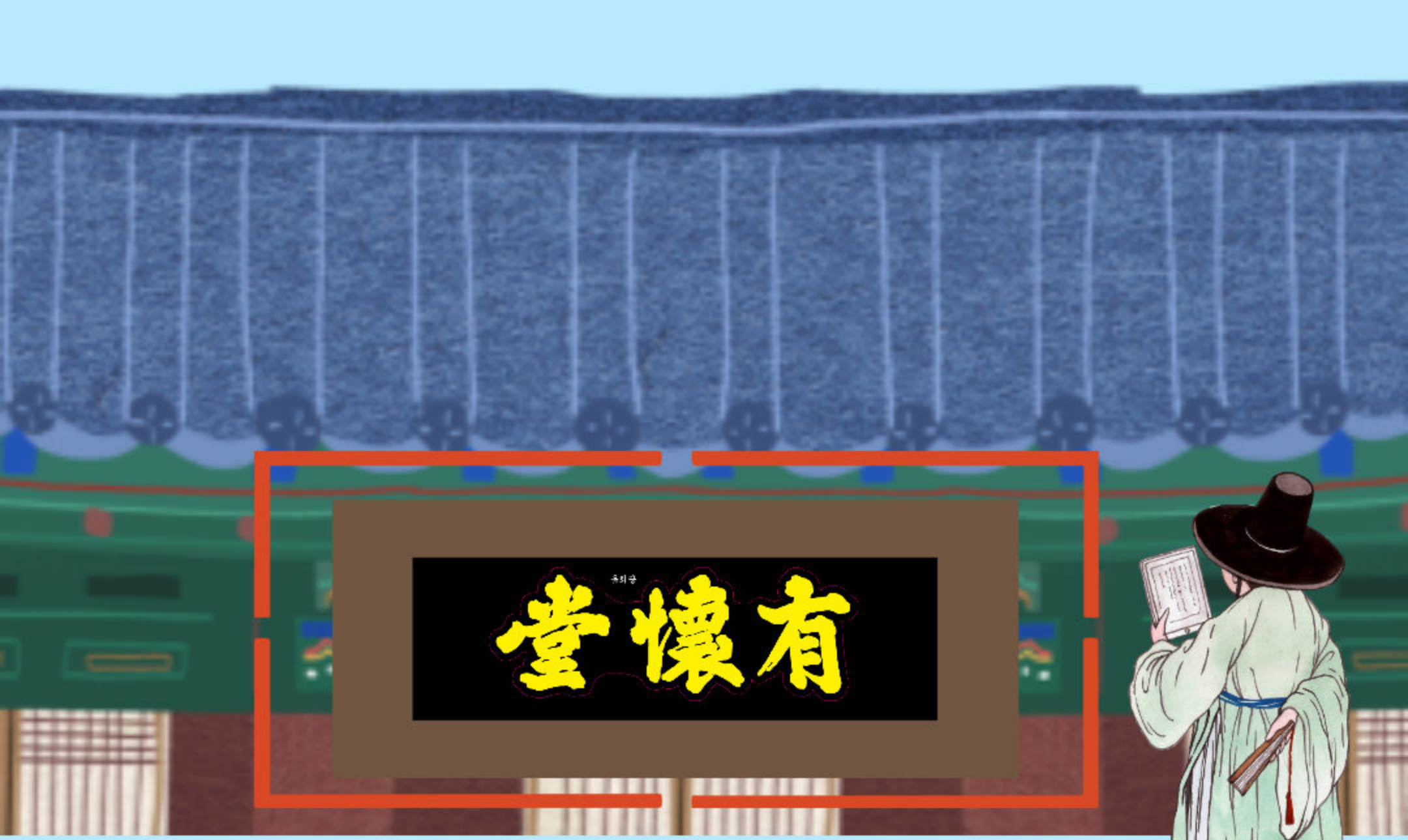


여유당 현판



유회당 현판

여유당 정약용과 유회당 권이진 생가에는 공통적으로
건물 중앙에 글씨가 새겨진 나무 널판이 존재합니다.



건물에 이름을 부여해 사용 목적을 알려주고

집의 문패 역할도 하는 나무 널판을 우리는 현판이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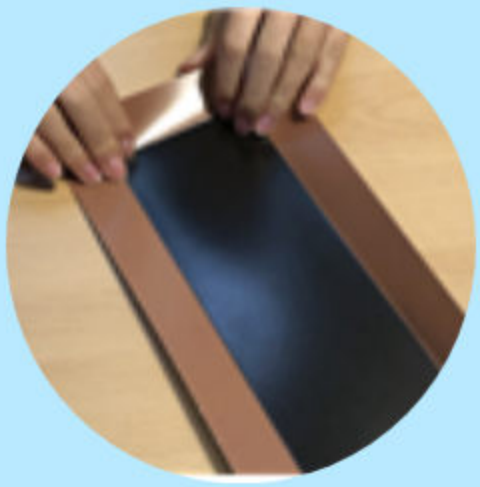


궁궐, 사찰, 역사 인물의 생가 등을 여행할 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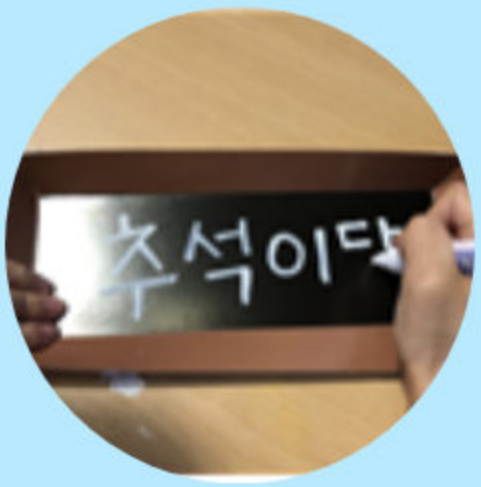
운영 기간	33. 9. 9(금) ~ 12(월) / 추석과 대체 휴일 연휴에 운영
장 소	한국족보박물관 1층
참가 대상	한국족보박물관 방문객
접 수	방문 당일 현장 신청 및 체험활동
체험내용	미니 현판 만들기



대전의 현판 알기



미니 현판 만들기



나의 현판 글씨 쓰기



단청 스티커로 꾸미기

참가비

무료

한국족보박물관은 2022년 추석을 맞이하여 대전 지역 선조들의 당호를 배우고 현판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 연휴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